



[요약] CAPEX keyword: 정상화 그리고 효율성

1. 이연되던 CAPEX도 정상화의 영역으로

- 경기 호황기에 준하는 성장에 대한 기대는 어렵겠지만, 경제활동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가져볼 수 있는 시점. 그 범주 안에는 CAPEX 사이클도 포함
- 실제로 CAPEX 사이클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음. 글로벌 주요 상장사들의 현금성 자산 축적, 일본의 기계류 수주 회복세 등 회복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등장

2. CAPEX의 방점이 효율성으로 향한다면

- CAPEX 사이클 자체가 해당 산업의 업황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재 가운데 산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수 있음
- 한편, Top-line에서의 성장성 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진행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분야라는 관점에서 SI 업종 또한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 있음.
- 같은 맥락에서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로봇/오토메이션 부문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해 보임

[본 자료는 금일(11/18일)발간된 Market Issue 자료인 'CAPEX keyword: 정상화 그리고 효율성'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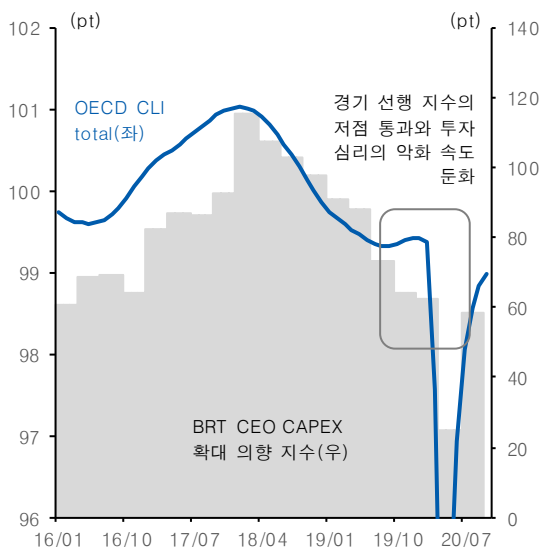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이연되던 CAPEX 도 정상화의 영역으로

백신의 개발과 코로나의 종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억눌렸던 여러 소비활동들의 회복은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 활동 가운데 소비만 억눌렸던 것은 아니다. 기업의 투자 활동 역시 코로나로 인해 기약 없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초 무역 분쟁 완화와 경기 사이클의 저점 통과 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CAPEX 사이클의 회복도 전망된 바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이 사이클도 다른 경제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며 다시 저점을 낮췄다. 이는 사이클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기보다 바이러스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변곡점의 높이가 순간적으로 하향 이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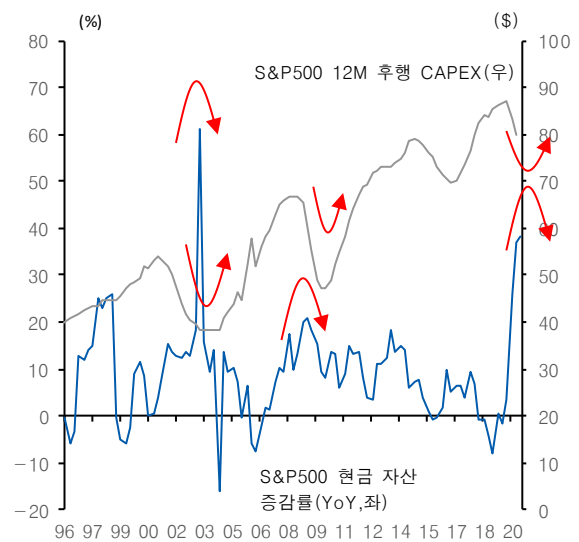
이제 그림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발생 이전, 일반적인 사이클 상 기존의 저점 영역으로 되돌림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의 충격이 사이클 진폭 상 일시적인 수직 하락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본다면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전개될 경우 바닥을 통과하고 있던 이전의 사이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본 공작기계 수주나 글로벌 상장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증가 등 CAPEX 사이클에 선행하는 지표들의 회복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차트1] 20년 초 경기 사이클의 저점 통과와 투자 심리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에 직면



자료: OECD, BR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미국 주요 상장사들의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 이는 위기 이후 투자 사이클 회복과 연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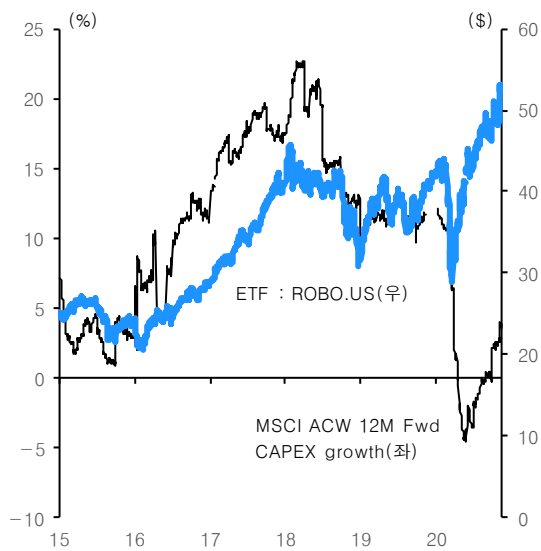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2. CAPEX의 방점이 효율성으로 향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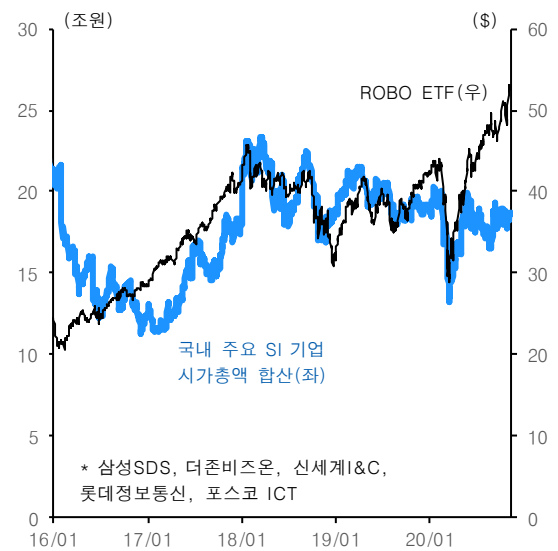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한 고민은 이미 시작되어 있던 상황이다. 결국 기업들은 이 같은 환경 하에서 투자 활동 역시도 전통적인 투자에 비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CAPEX의 회복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측면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상의 논의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먼저 살펴 볼만한 금융 상품이 로봇 및 산업 자동화(오토메이션)와 관련된 테마 ETF들이다. Global X Robotics & Artificial Intelligence ETF(BOTZ), ROBO Global Robotics and Automation Index ETF(ROBO) 등이 있는데, 아직 그 절대 규모가 큰 ETF들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수익률 추이를 보면 S&P500 지수 대비 우월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CAPEX 사이클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CAPEX 사이클과 로봇 및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부문에 대한 관심이 연동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역적인 생산성의 하락과 기업의 마진 여건 악화가 기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연결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분야, 더불어 CAPEX 사이클의 회복이 업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분야라는 조건을 대입해 보면 결론적으로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 등 주요 SI기업들을 떠올릴 수 있다.

[차트3] 글로벌 CAPEX 사이클과 로봇/오토메이션 부문에 대한 관심이 연동되고 있는 모습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로봇/오토메이션에 대한 관심과 한국의 SI 기업들의 주가도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